

## I. 총서론 (總序)

### 원리본체론을 공부하는 이유 (原理本体論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

#### 1.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現実世界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

인간은 누구나 소망하는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세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을 비롯하여 가정, 단체,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세계에는 갈등과 대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이상세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 【翻訳】

人間は誰でも希望する真の自由、平等、平和、幸福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理想世界を夢見ますが現実と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個人をはじめとして家庭、団体、国家、世界に至るまで多くの問題をかかえていることが現実です。現実世界には葛藤と対立があります。こうした現実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一人の人間では、理想世界を探して来く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 1) 현실세계의 문제 (現実世界の問題)

현실세계는 문제란, 최근에 일본이나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 지구 온난화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종족, 국가 간의 분쟁, 기아, 불균등한 분배, 질병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통일원리'는 인류역사 최대 관심사인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큰 과제로 봅니다.

##### 【翻訳】

現実世界における問題というのは、最近日本や南米、東南アジアなどの地で発生した地震と津波、地球温暖化など自然災害だけでなく種族、国家間の紛争、飢餓、不均等な分配、病気など私たちの人間が生きていく世界に現れるすべての問題を含みます。現在の私たちが体験し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は過去私たちのご先祖様が苦痛にあい、悩んだ問題でもあり、一歩進んで私たちの子孫が体験することにもなる問題です。それで'統一原理'では人類歴史における最大関心事である'現実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だろうか?'を最も大きな課題として見ています。

#### 가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부의 갈등 때문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개인에서부터 벌어집니다. 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지 못한 채 대립하고 갈등하는 남성이 여성을 만나 같이 살게 될 때, 부부라는 이름을 갖지만 서로는 하나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는 이나 불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翻訳】

#### 家庭の問題

現実の問題のうちで最も大きな問題は家庭の問題です。一人の男性と一人の女性が愛をもって出発するのが家庭です。そのような家庭が崩壊しています。その原因は夫婦の葛藤によるためです。

夫婦の葛藤は個人から広がります。私の心と体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なくて戦います。心と体が一つになれないまま対立して葛藤する男性が女性に会って一緒に住むことになる時、夫婦という名前を持ちますが双方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ので、対立と葛藤が続くほかはありません。

そのような夫婦は葛藤と対立という属性を持って生きることになり、そこで生まれた息子娘も同じようになります。父母と子供も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お互いに不倫、家庭の崩壊を招きます。すべてが家庭で愛の秩序が崩れながら広がることなのです。

현재 무질서한 성문화는 세계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동성애자가 늘어나고, 부부가 다른 배우자와 맞바꾸어 성관계를 갖는 등 무질서한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성을 향락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한편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결혼하지 않겠다.'며 독신주의를 주장하거나 '결혼도 아들딸은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성문화는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까지 가정과 자녀의 가치를 왜곡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 키웁니다. 아기는 젖만 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먹고 큽니다. 아기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신의 성장과 함께 사랑을 키워갑니다.

#### 【翻訳】

現在の無秩序な性文化は世界随所で蔓延しています。性を商品化して、同性愛者が増えて、夫婦が違う配偶者とスワッピングをして性関係を持つなど無秩序な性行為がおおっぴらに広がっています。さらには近親相姦まで一度や二度ではなく広がる実情です。性を享樂の道具とするのです。

一方それを悪く見て「結婚しない」として独身主義を主張したり「結婚しても息子、娘は産まない」とする若者たちも増えています。不健全な性文化は家庭の崩壊を招くだけでなく健全な考えを持った人々まで家庭と子供の価値を歪曲するようにそそのかしているのです。

人間は父母の愛によって生まれ育ちます。赤ん坊が生まれれば、お母さんはその赤ん坊を抱いて乳を飲ませて育てます。赤ん坊は乳だけ飲むのではなく、お母さんの愛も食べて大きくなるのです。赤ん坊はそうように成長しながら父母の愛を中心として家庭で自身の成長と共に愛を育てていきます。

사랑의 뿌리가 되는 심정을 키우는 동시에 심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훈련장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의 학교라고 하면, 심정의 훈련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갈등과 대립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곧 가정의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되고,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가정이 국가와 세계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실세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 【翻訳】

愛の根元となる心情を育てると同時に、心情的な生活をするようにする訓練場が家庭です。そのため、家庭を愛の学校だとすれば、心情の訓練場ともなるのです。

個人の葛藤と対立は個人で終わるわけではなく、家庭の葛藤と対立に拡大し、社会、国家、世界へ拡大します。それは家庭が国家と世界の基本単位であるためです。このように見る時、現実世界には多くの問題がありますが、最も深刻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家庭の問題です。

#### 청소년의 문제

그 다음은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장차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책임질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런 청소년이 바로서지 않으면 그 가정과 사회와 국

가와 세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의 윤락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일부가 윤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사랑을 도외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상품화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 생식기인데, 그것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든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윤락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나타난 병이 에이즈인데, 에이즈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수혈로 인한 감염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100 퍼센트 에이즈 보균자가 됩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국민의 34 퍼센트가 에이즈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나라는 얼마 못가서 멸망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문제를 방치한다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는 오늘날 땅 위의 음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린 하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翻訳】

### 青少年の問題

その次は青少年の問題です。青少年は家庭では愛される子女であり、将来、社会と国家と世界に責任を負うべき未来の希望です。そのような青少年が正しく立たなければ、その家庭と社会と国家と世界は未来がありません。

ところで、今日、青少年の墮落が非常に深刻な社会問題に浮び上がっています。一部の青少年が墮落の道を行っています。彼らは真の愛を度外視します。簡単に言えば、愛を商品化しています。人体で最も偉大で尊いのが生殖器なのに、それを売り買いする商品にするならば、それよりさらにみじめな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で青少年の墮落が深刻な問題になるのです。

愛の秩序を正しく立てることができなくて現れた病気がエイズであり、エイズは今日、世界で最も深刻に扱う病気の一つです。エイズにかかれば治療する方法がありません。薬もありません。輸血による感染も時々ありますが、エイズにかかった人と性的関係を結んだ人は 100 パーセント、エイズ感染者になります。

国連の報告によれば、アフリカのどの国の国民も 34 パーセントがエイズ感染者といます。そのまま置いておけば、その国はいくらも行かないうちに滅亡するでしょう。

韓国にも感染者がたくさん増えています。エイズ問題を放置するならば、人類は滅亡の道に行くほかありません。そのためエイズは今日、地上の淫乱を整理するためにおりた天の刑罰だと考える人もいます。

### 학원의 문제

그 다음은 학원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들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기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인성 교육을 하는 학교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좋은 여자, 정말 좋은 신랑감, 정말 좋은 신부감,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간을 중시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을 부모같이 여겼는데 오늘날에는 스승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교수와 싸우려 하고, 연구실문에 못을 박아 교수가 못 들어가게 하거나 학생들이 연합해서 교수를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조차 선생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교육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시간을 보내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학생이 칼을 들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잔혹한 범죄행위도 벌입니다. 경찰도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이 처럼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행복의 조건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머리가 좋고 품행이 단정해

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오늘날 학교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翻訳】

##### 学園の問題

その次は学園の問題です。学校は私たちの息子娘を未来の指導者に育て、立派な人に作るために教える場所な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人間性を教育をする学校はこの頃あまりありません。学生たちが学校で本当に良い男性、本当に良い女性、本当に良い花婿、本当に良い花嫁、本当に良いお父さん、本当に良いお母さんとして良い家庭を導い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な、人間を中心とした教育はほとんど受けられません。

過去には先生を父母のように感じましたが、今日では先生をそのように見ません。学生たちは意見が合わないと教授と戦おうとして、研究室の扉に釘を打ち込んで教授が入れないようにしたり、学生たちが連合して教授を殴打することが起こったりもします。近頃は小学生でさえ先生の話をよく聞かないといえます。先生は先生として教育し、学生は学生としての時間を過ごすということです。

また、小学生が刀を持って友人を殺したり、通りに出て行って残酷な犯罪行為も行います。警察もそれをともに防御できません。これのように青少年問題だけでなく学校教育の問題がますます深刻化しています。

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利も幸福の条件に含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頭が良くて品行が良く、社会に寄与できる若者が、お金がなくて、勉強を出来ずにいるならば、社会的にも不幸なことです。その若者には、必ず勉強できる条件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ういうものをおいてみる時、今日、学校教育の問題が深刻にならざるを得ません。

##### 노사의 문제

다음으로 노사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많은 봉급을 받아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직장인의 소망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사원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회사 사원들도 사장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 없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만 채우려 한다면 노사끼리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노동자가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투쟁이나 불법 파업은 경제적 손실도 크거니와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노사 갈등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한 회사의 문제에 그치지만 파업이 지속되면 노사 봉괴가 일어나 그 지역의 문제로 변하고, 국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노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翻訳】

##### 労使の問題

次に労使問題があります。良い環境で仕事をして多くの給料を受けて家庭生活を潤沢にすることが会社員の希望です。会社の社長は社員を満ちそうと努力するべきですが、その会社の社員も社長のためであるという心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互いに大切にしている心がなくて自らの欲望と利益だけ満ちそうとすれば労使同士の紛争が広がることになります。

もちろん労働者が自身の人権と生存権を守るために合法的な労働争議をするのは正当なこと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ところが不法闘争や不法ストライキは経済的損失も大きく人命被害も出ることのある危険な行為です。労使の葛藤が広がれば、初めはある会社の問題に終わりますがストライキが持続すれば労使の崩壊が起きてその地域の問題に変わり、国家に大きな経済的損失を及ぼすので、結局は国家的問題になるほかはありません。それゆえに不法な労使問題は深刻な社会問題に違いないので

す。

## 인종 차별

그 다음에 인종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할 동일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종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경제적 차별뿐만 아니라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인종 차별도 대단히 심각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 【翻訳】

#### 人種差別

その次に人種差別の問題があります。自由と平等を享受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じ人間に生まれながら、人種が違うという点だけで経済的差別だけでなく、人体に傷害を負わせるなど多くの問題が広がるのを見る時、人種差別も非常に深刻な現実の問題です。

## 국경의 문제

그 다음에 국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경선은 그저 막연하게 “어느 나라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세계에서 볼 때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을 제와 한 대부분의 존재에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곤충도 국경이 없고, 새들도 국경이 없고, 짐승도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국경선을 긋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심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경 문제는 현실세계의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翻訳】

#### 国境の問題

その次に国境の問題もあります。国境線はただ漠然と“どこの国かを区分するための線だ。”と考えるのですが、神様を中心とする本来の世界で見る時には、これは大きく間違っていました。この世が人を見ると、私と多くの存在の間には国境という概念がありません。昆虫も国境がなく、鳥も国境がなく、獣も国境がありません。海に住む魚も国境がありません。ところが万物の霊長という人間は国境線をひいてそのために互いに戦って相手を殺したりもします。

平和を望むのは人間の本心ですが、このような現実をおいて見る時、真の平和を実現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と見ます。なぜこのような世の中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という考えをもつようになります。このように国境問題は現実世界のもう一つの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

## 종교의 문제

그 다음은 종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양심을 지도합니다. 선에는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포함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세계,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오늘날 그런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2011년 말로 70억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78 퍼센트 정도가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차원은 다를지언정 한결같이 양심을 가지고 선을 추구합니다.

인간을 양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종교라면 그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날 종교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파가 다르고 교파가 달라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는 것은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가 세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와 진정한 선, 싸움이 없는 행복의 세계인데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 【翻訳】

##### 宗教の問題

その次に宗教の問題もあります。宗教は善を追求する人間の良心を指導します。善には平和もあり、自由もあり、幸福もあり、喜びも含まれます。真の平和の世界、真の自由の世界を実現することが人類の夢ですが、今日そのような世界を成し遂げられずにいます。

この地球上には数多くの宗教があります。世界人口が 2011 年末で 70 億になったのですが、その中で 78 パーセント程度が宗教家です。彼らは次元は違っても一様に良心を持って善を追求します。

人間を、良心のとおり生きるようにさせることが宗教ならば、その世界は幸せな世界になり、平和な世界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でかえって宗教のために戦い、宗教のために血を流す戦争が広がっています。これを見る時、今日、宗教は宗教としての使命を果た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といえます。

分派が違って教派が違って教会が分かれています。互いに反目して行こうとすることは宗教の目的ではありません。宗教が世界の多くの問題を解決するべきなのに、かえって問題を作っているのが現実です。宗教が追求するのは自由と真の善、戦うことがない幸福の世界なのに、そういう本質をなくしてしまうことが問題です。

##### 영계의 문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영계의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먼저 “죽으면 가게 된다는 영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지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 장 17 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 비정상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세계의 문제 중의 하나가 영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 【翻訳】

##### 霊界の問題

また一つ重要なのは霊界の問題です。今まで人類は霊界に対して大きな関心を傾けませんでした。しかしこれからは霊界が重要な問題として台頭するでしょう。

人は生まれれば必ず死にます。まず “死ねば行くことになるという霊界があるのか、ないのか?” という問題が生じます。霊界を認めても “それが人間の地上生活とどのような関係があるのか?” という問題は人間が必ず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す。

聖書、使徒行伝 2 章 17 節にも神様が語られているように “末世に私が御霊をすべての肉体に注ぐだろう。あなたの子供は預言をすることでしょう。あなたの若者たちは幻想を見るでしょう。あなたがたの老人は夢を見るだろう” 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老若男女、全部が霊的な体験を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言葉です。

この場合、神様から来たものなのかどうかを、まともに分別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人間の生き方が非正常的に転落す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それよりさらに恐ろし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霊界に対する問題は私たちにとって重要で深刻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す。それで現実

世界の問題の中の一つが霊界に対する問題です。

## 사상의 문제

그 다음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이러한 싸움이 사상세계에서 비롯된 인류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편이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편입니다.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쪽으로든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산주의는 무신론(초자연적인 것, 즉 각종 영혼, 내세 등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견해)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는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간 인간이 역사 속에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를 놓고 수없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을 중심해서 집대성한 하나의 제도요 조직입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이라 하고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라 합니다.

제도의 집단은 그 체제가 흔들리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상의 집단은 그 체제가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간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 【翻訳】

### 思想の問題

その次は思想の問題です。“民主主義か、共産主義か？ 左翼か、右翼か？ 唯物論か、有神論か？”このような戦いが思想世界から始まった人類の最後の戦いです。

この地球上には多くの方が生きていますが、根本的に問い詰めれば二つに分けられます。一つは民主主義の方であり、また、もう一方は共産主義の方です。もちろんその中間もあります。しかし中道的な立場を取っている人はどちらにも傾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とにかく共産主義は無神論(超自然的なこと、すなわち各種靈魂、来世などに対する信仰を拒否する見解)を主張して、民主主義は有神論を主張しながら二つに分かれて戦っているのが現実です。

過ぎ去った人間が歴史の中で“精神が先か、物質が先か？”について数えきれない程、論争を繰り広げました。民主主義や共産主義は、ある哲学や理論を中心として集大成した一つの制度であり、組織です。そのように民主主義は制度の集団といい、共産主義は思想の集団といいます。

制度の集団はその体制が揺れれば何の力もなしに崩れます。しかし思想の集団はその体制が崩れて制度が崩れても一人一人が自身の思想を捨てないために並大抵ではなく、消えません。それで共産主義が恐ろしいのです。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체제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남한이 더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하나의 사상으로 전 국민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좋지만 그 자유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 것이 민주주의 세계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을 자유로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민주주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달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두 철학이 뒷받침되고 보는데, 공산주의는 자기 나름의 확고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없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자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처럼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믿고 따를 만큼 확고한 철학을 지닌 체제는 없습니다.

또 공산주의자가 유물사상을 신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세계에도 유물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 【翻訳】

今日大韓民国は対立していますが、北朝鮮は共産主義体制であり、韓国は自由民主主義体制です。韓国は北朝鮮と統一しようとはしますが、事実は韓国がさらに問題です。北朝鮮はすでに一つの思想で全国民が統一されています。ところが韓国は各自の立場により多様な思想を持っています。自由があつて良いようですが、その自由のために問題が多くなったのが民主主義世界です。

民主主義は自由と放縦を混同する傾向があります。放縦を自由と思い、自分勝手に行動して、民主主義は滅びることもあります。今日、最も大きな問題は人間の本性を指導することができる思想がないという点です。そのために人間の本性をなくして個人主義と利己主義にはしているのが民主主義です。

民主主義や共産主義は全部哲学が後押しているとき、共産主義は自分なりの確固たる真理だと主張する哲学を有していますが、民主主義にはそのような確固たる哲学がありません。

一部、政界ではどのような思想を持って与えようかと言いますが、共産主義のようにその国の国民全体が信じて従う程、確固たる哲学を持った体制はありません。また、共産主義者が唯物思想を信奉するのは当然のことかもしれませんが、民主主義世界にも唯物思想を信奉する人が多いのです。このような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でしょうか？ この問題が深刻です。

## 공해의 문제

공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의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 현상등 공해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동해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다른 바다로 이동해서 더 이상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연구하고, 물속의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심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해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翻訳】

### 公害の問題

公害の問題もあります。科学の発達によって、今日の人類は多くの恩恵を享受しています。しかし科学の発達で環境汚染、地球の温暖化現象など公害の副作用が現れたりもします。

韓国でも、その間、東海で捕えられていた魚が違う海に移動してこれ以上捕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えます。魚が他に移った理由は、温暖化現象で地球環境に変化が生じたためです。水温が徐々に上がるので冷たい水で生きる魚がその場を離れているのです。海を研究して、水の中の環境を研究する学者はそれを深刻な現象と見ています。公害問題もまた、深刻に人類を脅かしています。

## 세계적인 대립의 문제

그 다음은 세계적인 대립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문제는 아시아의 문제와 중동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아시아에는 한반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조상의 뿌리도 같고 언어도 같은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질적인 사상으로 분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에 대해서는 "타락론"에서 밝힘)

인간의 조상인 아담 해와는 타락으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부모, 비원리적 존재인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모체로 비원리적인 존재가 된 아담 해와는 선과 악을 분립하여 악을 제거하지 않고는 원리적인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의 두 아들을 갈라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사탄 편에, 둘째 아들 아벨을 하나님 편에 각각 분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 【翻訳】

### 世界的な対立の問題

その次は世界的な対立の問題です。世界の問題はアジアの問題と中東の問題に集約されます。アジアには韓半島の問題があります。韓半島では先祖の根元も同じで言語も同じ韓民族が南と北に分かれて冷戦を行っています。それは政治体制が民主主義と共産主義という異なる思想で分立したためです。その根元はアダム・エバの墮落に遡ります。(アダム・エバの墮落に対しては“墮落論”で明らかにします)

人間の先祖であるアダム・エバは墮落によって真の父母になれず偽りの父母となり、非原理的存在である善悪の母体になりました。善悪の母体という非原理的な存在となったアダム・エバは善と悪を分立して悪を除去しなくては、原理的な神様に直接対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それで象徴的に彼の二人の息子を分立しました。初めての息子カインをサタン側に、次男アベルを神側にそれぞれ分立したのです。

아담 해와 가정에서 비롯된 분별 사례는 역사와 함께 대립을 초래하는 주류사상을 이루어오다가 현세에 와서 하나는 공산주의로, 또 하나는 민주주의로 양분되었는데, 마지막에는 한반도가 민주체제와 공산체로 분단된 대립의 축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동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인들의 조상은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을 제대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지금의 이집트)으로 들어가 고역을 치르고 400 년 만에 그의 후손이 고역을 끝내고 귀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 장 9 - 13 장)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당시의 지배권을 행사하던 유대 민족과 유대교가 그 분을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동은 오늘날까지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중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 【翻訳】

アダム・エバの家庭から始まった分別事例は、歴史とともに対立を招く主流思想を成してきており、現代においては一つは共産主義、また、一つは民主主義に二分化されましたが、最後には韓半島が民主体制と共産体制として分断された対立の軸になりました。

一方中東の問題は宗教の問題だと言えます。

中東の人々の先祖は聖書に出てくるアブラハムです。アブラハムは神様に捧げる祭物をきちんと分けなかったために埃及(今のエジプト)に入って苦役に服し、400 年後に彼の子孫が苦役を終わらせて帰還することになります。(出エジプト記 15 章 9 - 13 節) その子孫の中にイエス様が誕生しましたが、当時の支配権を行使したユダヤ民族とユダヤ教が、その方を亡くするようにしたので、そのみ旨が成しとげられなかった中東は、今日まで宗教的葛藤を経ることになります。イエス様の復活以後、ユダヤ教とカトリックで、カトリックと新教で宗教的葛藤が続くのです。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通り再臨されなければ中東の問題は解決されないでしょう。

### 철학의 문제

그 다음으로는 존재와 관계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오늘날 철학은 우리 존재와 관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보이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만물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과 만물은 어떤 관계인가? 남자는 왜 태어났으며 서로 어떤 관계로 살다로 가는가?” 철학은 이런 근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도 오지 않

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정치, 경제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이 동원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금방은 해결한 것 같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翻訳】

### 哲学の問題

その次には存在と関係した問題があります。それが哲学の問題です。哲学は人生と宇宙の根本問題を明らかにする重要な学問です。今日、哲学は私たちの存在と関係の問題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言い換えれば“見られないものを存在しているといえるのか？ 存在するならばそれが見えるものとどんな関係を有しているのか？ 見られないのに神様はおられるのか？ おられるならば神様は人間とどんな関係なのか？ 神様と万物はどんな関係なのか？ 人間と万物はどんな関係なのか？ 男性はなぜ生まれたのか、また互いにどのような関係で生きて行くのか？”哲学はこのような根本問題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を解決できなかったために今日、多くの哲学者が悩んでいるのです。

このような色々な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平和と統一が成し遂げられませんし、幸福もきません。それで多くの宗教、政治、経済界はもちろん学界、言論界、芸術界などすべての方面の指導者が動員されて、そ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ましたが、それは一時的な方便に過ぎませんでした。すぐに解決したようですが問題を根本的に解決できなかったために、時間が過ぎて問題がより大きくなりました。それは、神様がよく分からないためです。

### 인생관의 문제

그 다음은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하는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인생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눈에 보이는 몸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을 놓고 보면 마음이 주체이고, 몸은 대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의 구조는 과거나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눈에 보이는 몸이 인간이라는 개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하나로 통일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마음과 몸이 서로 갈라져 많은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마서 7 장 22-24 절) 하면 탄식했습니다.

## 【翻訳】

### 人生観の問題

その次は人間がどのように正しく生きるかという人生観の問題です。人生観をどのように立てるかにしよって、その人の未来が変わります。人間は神様 から来た存在なので、正しく生きようとするなら神様の造られた目的のとおり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に生きるということが価値ある人生です。

人は目に見えない心と目に見える体が共存する二重構造になっています。関係性において見れば心が主体で、体は対象です。体と心を持つ人の構造は過去や現在もそうだし、未来も同じことだろう。目に見えない心と目に見える体が人間という個体の中で一つ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人間は表面では一つに統一されているようですが、事実は内部で心と体が互いに分かれて、多くの葛藤と対立と闘争を行っています。使徒パウロは“私 の心の人では神様の法をうれしがるも

の私の肢体の中にある他の法が私の心の法と戦って私の肢体の中にある罪の法へ私をひきつけてくるのを見る。なんと私 は苦しくて困難な人だろう。この死亡の体で誰が私を救い出すだろうか”(ローマ書 7 章 22-24 節)となげきました。

## 신관의 문제

현실세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신관입니다. 신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시대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세계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원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향이 좌우됩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언 1 장 7 절)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다르고 세계관과 역사관과 우주관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도 그 관점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이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각자의 인생관과 결혼관, 그리고 역사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翻訳】

### 神観の問題

現実世界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も重要な問題は、“神様をどのように分かるのか、神様をどのように見るのか?”という神観です。神観を、最も重要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次のとおりです。

今まで人類は、時代ごとに自分たちが知っているすべての知識を動員して、当面の現実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しましたが、明快な答え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目の前に見える現実世界を解決するのに汲々としたあげく、根源的存在である神様に対する問題を解決できなかったためです。

神様に対する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かにより、人類が抱いている問題の解決方向が左右されます。聖書にも“エホヴァを畏敬することが知識の根本だ”(格言 1 章 7 節)とありました。神様を正しく知れば、全てのものを知るようになるという御言です。神様がおられると信じる人は、神様を信じない人と人生観が違います。人生観だけでなく国家観も違い、世界観と歴史観と宇宙観も違います。

神様を信じるか信じないかによって、一つの家に住んでいる父母と子供もその観点が違い、夫婦間においても観点が違います。したがって同じ教会に出かける信仰者でも、神様をどれくらい正確に知っているかによって各自の人生観と結婚観、そして歴史観と国家観と世界観と宇宙観が変わるしかないので。

## 2) 왜 문제가 생겼는가? (なぜ問題が生じたのか?)

문제의 발단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현실만이 아니라 역사상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마음과 몸이 갈라져 개체 내에서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도 서로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벌이고 그것이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도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갈등과 대립,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닌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부터 마음은 주체이고 몸은 대상입니다. 몸은 마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

신 본연의 모습인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아 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본심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 【翻訳】

問題の発端は、人間始祖アダム・エバの墮落です。墮落により現実だけでなく歴史上にも大小の問題が続きました。

墮落によって人間は心と体が分かれてしまい、個体内では葛藤と対立と闘争を行っています。そのような男性と女性が出会って家庭をなして住んでも、双方は葛藤と対立と闘争を行い、それが家庭の崩壊につながるのです。

それなら、私はどんな存在なのか？ 私も墮落したアダムとエバの子孫です。したがって、私は葛藤と対立、闘争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矛盾を持った存在になるほかはありません。本来なら心は主体で体は対象です。体は心の命令により動きます。それが神様の作られた本来の姿なのに、体がそのように従わなくて、いつも苦しんでいるのです。墮落によって本心をなくした結果です。

本心は最高の善입니다。人間은 그 본심에 따라 생활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본심을 잃어버리고 사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사탄과 관계를 맺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심은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악의 뿌리입니다. 사심을 따라 행동하면 악행이 되고 악행은 슬픔을 초래합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 장 15 절)고 했습니다. 본심의 욕망을 추구하면 행복해지고, 사심의 욕망을 추구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本心과 사심은 모두 인간의 마음속에서 출발하지만, 이 둘은 서로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순된 존재요, 선악의 모체입니다.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로마서 7 장 22-24 절)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 【翻訳】

本心は最高の善です。人間はその本心により生活する時、喜びを感じます。ところが、人間はその本心をなくして、邪心はその場を占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は、アダム・エバがサタンと関係を結んで、墮落したためです。邪心は自己中心に生きようとする心なので、それがサタンから来た悪の根本なのです。邪心にしがたって行動すれば悪行になり、悪行は悲しみを招きます。聖書にも、“欲が妊娠となり、罪を産み、罪が成長して死亡をもたらした。”(ヤコブ書 1 章 15 節)とありました。本心の欲望を追求すれば幸せになり、邪心の欲望を追求すれば不幸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本心と邪心は全部、人間の心の中から出発しますが、この二つはお互いに動機と目的と方向が異なります。それで人間は矛盾した存在であり、善悪の母体なのです。パウロも“私の心の人では神様の法をうれしがるものの私の肢体の中である他の法が心の法と戦って私の肢体の中にある罪の法の下へ私をひきつけてくるのを見る。ああ、私はなんと苦しくて困難な人だろう。この死亡の体から誰が私を救い出してくれるのか”(ローマ書 7 章 22-24 節)と嘆きました。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선악의 모체가 된 타락인간을 직접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주인만 상대하도록 한 원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두 주인을 상대해야 하는 비원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타락성이 생긴 것입니다.

타락성은 인간의 원죄를 만든 사탄의 악성입니다. 시기와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증오 등이 타락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성품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翻訳】

神様は善の本体なので、善惡の母体になった墮落人間を直接相手にできません。神様は人間に、一人の主人だけに相手にするようにした原理的な存在なのです。ところが、人間が墮落によって二人の主人を相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原理的存在になりました。人間に墮落性ができたのです。

墮落性は、人間の原罪を作ったサタンの悪性です。猜疑と嫉妬、血氣、傲慢、意地、憎しみなどが墮落性です。神様にはそのような性分は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心を持てば、人間が神様の子女にはなれないし、神様の国、天国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は、このような人間に対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このような問題をどのように清算するつもりなのかと思うことが重要な課題です。

3) 타락이 초래한 인생의 문제 (墮落が招いた人生の問題)

人間은 타락으로 참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까지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참사랑의 이상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본성을 찾은 인간을 통해 이상가정이 세워질 때, 이상국가가 나오게 되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영육의 무지로 떨어졌습니다. 심령과 지능의 무지상태, 즉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를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은 영적이고, 보이는 몸은 육적입니다.

【翻訳】

人間は墮落によって真の神様をなくしました。創造当時から神様が付与した人間の本性をなくしたので、人間は神様の創造理想を知らないだけでなく、神様の子女になる資格まで喪失したのです。そして神様が子女を通じて成し遂げようとされた真の愛の理想家庭をなくしました。先に本性を見出した人間を通じて理想家庭が立てられる時、理想国家が現れ、理想世界が成り立ちます。それが地上天国と天上天国へ行く道です。

その次に人間は靈肉の無知に落ちました。心靈と知能の無知状態、すなわち靈的な無知と肉的な無知を兼ね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人間においてみれば見えない心は靈的であり、見える体は肉적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이성적이요 관념적으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모릅니다.

또 영적인 무지는 인생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족보를 들추지만, 근본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누구나 존재의 시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창조한 뜻, 즉 창조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가치는 영계에까지 이어집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길어야 100 년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영혼은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계는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적용하여 영계를 측정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 【翻訳】

靈的な無知は創造主である神様が分からないことです。信仰をもっている人でさえも、神様を理性的で観念的に漠然と知っているだけです。人間は本性を失ったので神様の心情と事情が分からないのです。

また、靈的な無知は人生に対する無知です。自分がどこからきたのか、どんな目的で創造されたのかを知らずにいるのです。人々は自らの存在性を置いて家系図を解きますが、根本を問い詰めてみるならば神様まで上がります。誰でも存在の始原は神様です。神様には人間を創造した御旨、すなわち創造目的があります。創造目的があるので、人間の価値が付与されるのです。

そのような人間の価値は靈界にまで続きます。人間は必ず死ぬことになっています。人間の地上生活は長くて 100 年です。人間が死ねば身体は土に戻って魂は神様に戻るといいます。魂は靈界に行くのです。靈界は無限で永遠の世界です。その世界は時間と空間で測定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しかし、人間の概念によって時間性と空間性を適用し、靈界を測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世界であるという事実を人々は知らずにいます。

타락으로 자기의 가치를 상실한 인간에게 선악의 문제도 야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종교를 세우셨습니다. 타락이 없는 본연의 세계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타락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고 무지로 떨어진 인간이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육적인 무지는 물질세계의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은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나 분자의 구성요소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근본은 무엇인가? 과학자들도 물질세계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도 분석해 보면 에너지체입니다. 물질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마음도 에너지체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무지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것도 육적인 무지에 속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어떤 힘을 가해도 변경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눈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털옷을 입고 다니더라도 이미 입춘이 지난 절기라면 봄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 【翻訳】

墮落によって自らの価値を喪失した人間には、善惡の問題も引き起こされました。神様は、このような問題を正そうと宗教をたてました。墮落のない本来の世界には宗教が必要ありません。神様の本質の中には宗教がありません。墮落により本来の姿を失って無知に落ちた人間が、本来の位置で神様に侍って生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宗教が必要なのです。

一方、肉的な無知は物質世界の根本を分からないことです。物質は原子または、分子で形成されていますが、原子や分子の構成要素はエネルギーです。それならエネルギーの根本は何なのでしょう? 科学者も物質世界の根本を知らずにいます。物質で成り立っている私たちの体も、分析してみればエネルギー体です。物質だと規定できない心もエネルギー体です。そのエネルギーがどこからきたのかを知らずにいます。それが肉的な無知です。

自然の法則を分からないのも肉的な無知に属します。自然の法則は人間がどんなに力を加えても変更することができず、防ぐこともできません。人間もその法則に順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外に雪が積もって冷たい風が吹いていて人々が毛服を着て通っても、すでに立春を過ぎる節気ならば春が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땅속에서 새싹들은 대지를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나뭇가지에서도 움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봄이 되면 식물들은 어김없이 싹이 트고 여름에는 무성해져 열매도 맺습니다. 또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런법칙을 세웠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육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人間은 이와 같은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와 과학의 두 분야로 나뉘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규명해 왔습니다. 종교는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추구하고, 과학은 물질세계의

본질을 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목표를 지향할 때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고 행복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종교와 보이는 목적관을 추구하는 과학이 하나 되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翻訳】

土地の中で新芽は大地を突き抜けて出る準備をして、木の枝も芽を出す準備をします。春になれば植物は間違いなく芽生えて、夏には生い茂って実も結びます。また、秋になれば落ち葉が散って、やせこけている枝だけが残ります。それが自然の法則です。そのような法則がどこからきたのか、誰がそのような法則を立てたのかを分らないでいます。それを肉的な無知といいます。

人間は、このような無知から抜け出すために、宗教と科学の二つの分野に分かれて、靈的な世界と肉的な世界を究明してきました。宗教は靈的な世界の本質を追求し、科学は物質世界の本質を追求してきたのです。したがって、宗教と科学が統一された目標を指向する時、真の世界の平和が実現され、幸福の世界を成すことができます。見えない価値観を追求する宗教と見える目的観を追求する科学が一つになってこそ、私たち人間は幸せになりえるのです。

그런데 종교와 과학은 통일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는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과학은 물질세계를 추구하는데,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마음의 무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과학은 몸의 무지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명령과 뜻에 몸이 잘 따라줄 때 행복하지만, 몸이 마음의 뜻과 명령에 역행하면 불행해집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바로 알고, 과학이 물질세계의 참모습을 확실히 밝힌다면 서로는 공감하고 일치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주체이고 보이는 몸이 대상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는 주체가 되고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과학은 대상이 됩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인 종교와 과학이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翻訳】

ところで、宗教と科学は統一されないと主張する人もいます。宗教は精神世界を追求し、科学は物質世界を追求するのですが、精神と物質がどのようにして一つ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ところが宗教は心の無知を悟る役割をし、科学は体の無知を悟る役割をするので、この二つの分野は相反しません。人間は心の命令と意思に体が良く従う時に幸せになりますが、体が心の意思と命令に逆行すれば不幸になります。

宗教が神様の創造理想を正しく知って、科学が物質世界の真の姿を確かに明らかにするならば、双方は共感して一致した目標を指向できるのです。見えない心は主体で、見える体が対象であるように、靈的な世界を追求する宗教は主体となり、見える物質の世界を追求する科学は対象になります。主体と対象の関係である宗教と科学が統一を成し遂げなくてはいけないのです。

#### 4)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現實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理由)

역사상 인류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계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언론계가 동원되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엽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저질러진 사소한 문제가 확산되어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천주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翻訳】

歴史上、人類には多くの問題が発生しました。問題が発生するたびに、各界の指導者がそ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努力しました。宗教界をはじめとして、政治、経済、言論界が動員されて現実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努力しましたが、それは一時的方便に過ぎませんでした。問題が発生するたびに枝葉的に対処しており、見たら問題の根本が解決されなかったのです。その当時には解決されたようにも見えましたが、時間が過ぎれば問題がより大きくなり広がりました。エデンの園で行われたささいな問題が、広がってもう世界的な問題になり、宇宙的な問題になりました。それは知っている人だけが解決できます。

問題を解決できない決定的な理由は三種類です。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똑바로 가르치는 종교가 마지막 종교입니다. 인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류의 갈등을 집약하여 사상전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등이 발생하면 물질을 통해 무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翻訳】

最初は創造主である神様を否定するためです。人間は墮落により神様を失いまし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神様の中に戻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宗教の究極的な目的は、人間を神様に帰れるように正しく教えることです。神様と会うことができる道を真つすぐ教える宗教が最後の宗教です。人類はその道に沿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人類は第3次世界大戦を準備しています。それが最後の戦争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なるためには人類の葛藤を集約して思想戦で終わりに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す。今までは葛藤が発生すれば物質を通じて武力的な方法で解決しようとしてきました。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어야 할 첨단과학이 전쟁에 동원되어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구상은 누가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첨단무기의 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느냐 하는 사상의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翻訳】

そうするうちに、人間の生の質を向上させるのに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先端科学が、戦争に動員されて人命を奪い取りました。地球上では、誰がもっと性能が良い武器を持って、もっと多くの人を殺す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先端武器の展示場になったのです。そのような方法では、戦争で真の勝利をおさ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事実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からは誰が神様を正しく教えるかという思想の競争で方向を切り替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を否定して、神様を除いては、現実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성직자가 많지만,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직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지식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翻訳】

二番目は神様を信じながらも、神様をよけて置い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ためです。世の中



には神様を信じて教える聖職者が多いのですが、現実の問題をまともに解決できる聖職者は多くはありません。それは個人の知識と生活の経験を持って自己中心的に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ためです。

셋째는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존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간에게까지 전수된 타락성입니다. 인간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翻訳】

三番目は、人間が自身の境遇を分からないためです。問題を作るのも人であり、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存在も人です。ところで、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事者が問題の根源を分からないでいます。問題の発端は人間の墮落です。

墮落により人間は神様を失い、分からなくなりました。根本を分からない無知な人間になったのです。それが今日の人間にまで伝授された墮落性です。人間がそのような自身の境遇を認めようとしないので、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 2. 문제의 해결방안 (問題の解決方案)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원리 본체론이 절대 필요합니다. 통일원리 본체론이 출현한 데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원리권에서 자라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원칙에 따라 살도록 한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창조 당시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는 성장기간을 거쳐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간은 인간 조상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기간입니다. 인간이 완성하여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을 닮고 하나님의 절대성 본체를 닮으면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이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 【翻訳】

すべて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統一原理本体論が絶対に必要です。統一原理本体論が出現したところには必然性があります。

神様は、人間を神様の子女としました。神様が留まる聖殿になるように創造しました。それで神様がエデンの園で人間先祖アダムとエバを創造し、彼らに原理圏で育って生きるようにしました。原則に従って生きるようにしたのでした。アダム・エバは創造当時から完成された人間として作られたのではないのです。蘇生期、長成期、完成期という成長期間を経て完成す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成長期間は人間先祖が神様の子女となり、聖殿になることができる人格を整える期間です。人間が完成して、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に似て、神様の絶対性本体に似れば、その資格を備えることとなります。人間が資格を備えれば、神様と父子関係となり、神様の聖殿となるのです。

그런데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무원리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본래의 원리권을 이탈하여 한줌의 흠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줌의 흠도 하나님의 창조원칙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런 만물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앞세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을 비롯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까지의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입니다.

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타락한 후 1600 년 만에 노아를 중심인물로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 장 13 절)는 말씀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제 1 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 【翻訳】

ところが、人間が長成期完成級で墮落しました。無原理圏に落ち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のです。言い換えれば、人間が墮落により本来の原理圏を離脱して、一握りの土だけにもなら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一握りの土も神様の創造原則が適用されて現れた結果です。墮落した人間がそのような万物よりも劣る位置に落ちたのです。それで人間は万物を前面に出して神様の前に戻るほか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がすなわちアダムをはじめとするノアとアブラハムまでの家庭を中心とする復帰摂理です。

聖書の創世記を見れば、神様はアダム・エバが墮落した後 1600 年ぶりにノアを中心人物に立てました。ノアは、その時代の義人でした。神様はノアに"すべての血縁のある者の暴虐が地にいっぱいになったので、終わり日が私の前に到達したので、私が彼らを地と共に滅ぼすだろう。" (創世記 6 章 13 節) という御言と共に方舟を作れ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ノアはその御言を絶対的に信じて方舟を作りました。それでノアは第 1 の信仰の先祖になったのです。

人間이 타락할 때는 순식간에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는 타락하기 전의 자리로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노아 때에 방주를 중심한 섭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탄을 중심한 인간은 모두 홍수 심판을 받았고 노아가정의 여덟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아들 함의 실수로 인해 노아가정의 방주 중심한 복귀섭리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노아 이후 400 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3 대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인간들은 노아 때보다 심령이 더 발달했습니다. 또다시 방주를 중심한 섭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제물은 비둘기, 양, 암소인데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 【翻訳】

人間が墮落する時は、わずかの間に落ちましたが、上がる時は墮落する前の位置に、すぐには上がりません。それでアダムからノアを立てる時まで 1600 年という期間がかかり、ノアの時に方舟を中心とする摂理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当時、サタンを中心とする人間は全部、洪水審判を受け、ノア家庭の 8 人家族だけが方舟に入って審判をまぬがれました。ところがノアの次男ハムの失敗によって、ノア家庭の方舟を中心とする復帰摂理が水泡と消えました。

ノア以後 400 年ぶりに神様はアブラハムを呼んで彼に 3 大祭物を捧げろ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アブラハム時代の人間はノアの時より心霊がさらに発達していました。また再び方舟を中心とする摂理をすることはできなくなったので、神様はアブラハムに祭物を通じて神様の前へ行くことができる道を開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祭物は鳩、羊、雌牛であり、それを裂いて神様に差し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세 가지 제물은 아담, 해와가 완성해야 할 소생, 장성, 완성의 3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과 노아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아브라함가정에서 다시 찾는 3 단계의 복귀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비로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세웠지만 사탄세

계에는 이미 민족적인 기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정적인 기대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사탄세계는 이미 민족을 중심해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면 민족의 형태를 갖춘 사탄 편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제물 실수로 그의 후손들이 애급에서 400 년 동안 고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 【翻訳】

三種類の祭物はアダム・エバが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蘇生、長成、完成の3段階を象徴します。それはアダム家庭で失ったものと、ノア家庭で失ったものをアブラハム家庭で再び探す3段階の復帰過程を意味してもあります。ところが、アブラハムが鳩をさかなかったのです。神様の復帰摂理が原点に戻ったのです。

それで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を経てはじめてメシアが立てることができる基台を立てましたが、サタン世界にはすでに民族的な基台が立てられていました。神様側では家庭的な基台しか立てられていなかったのですが、サタン世界にはすでに民族を中心として王が立てられたのです。そこにメシアを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メシアを送れば民族の形態を備えたサタン側が殺すことができるためです。また、アブラハムの供え物の失敗で彼の子孫がエジプトで400年の間、苦役を体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期間が残っているのでメシヤを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す。

그래서 애급에서 400 년 고역을 마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급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급을 벗어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받아서 율법을 중심한 새로운 섭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섭리역사의 시대를 거쳐 하나님이 1600 년 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 【翻訳】

それでエジプトで400年間の苦役を終えた後、イスラエル民族を連れてエジプトから出るようになります。エジプトを抜け出したモーセがシナイ山で、はじめて神様から十戒が彫られた石版を受け、律法を中心とした新しい摂理時代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そのような摂理歴史の時代を経て神様が、1600年ぶりにメシヤであるイエス様を送って下さったのですが、今回はユダヤ民族がイエス様を十字架に渡してしまいました。イエス様は新しい神様の御言で律法を完成しに来られたのですが、ユダヤ人がその福音を信じなかったのです。それでイエス様は、また来るという約束を残して亡くなりました。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2000 년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 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 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지 2000 년이 되는 때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때가 되면 반드시 중심인물을 세우고 그 중심인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불신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새로운 중심인물이 세워지는 때는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새 역사를 출발하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를 기원전(BC: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과 기원후(AD:Anno Domini, 서기)로 구분합니다.

#### 【翻訳】

聖書を詳しく見れば、神様の摂理は2000年の周期で繰り返されています。アダムからアブラハ

ムまでの 2000 年、アブラハムからイエス様まで 2000 年がかかりました。今日、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時代は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て亡くなられてから 2000 年になる時です。また来るといった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時というものを先がけて知ることが出来ます。

神様は摂理の時になれば必ず中心人物を立てて、その中心人物に御言を授けました。時代により新しく宣言される御言に従って行けば救援を得、不信に思えば地獄に落ちます。新しい中心人物が立てられる時は、過ぎた歴史を整理して新しい歴史を出発する転換点です。イエス様が生まれた時期を基点に人類歴史を紀元前(BC:Before Christ、キリスト以前の時代)と紀元後(AD:Anno Domini、西暦)で区分しています。

마찬가지로 재림시대에도 재림주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타락 역사가 완전히 정리되고 새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섭리의 시대성으로 봐서 반드시 새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새 시대에 주어진 새 말씀으로 감춰진 역사의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의 예언으로 보아도 새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 장 25 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 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했고, 요한복음 16 장 12 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못 주신 것입니다.

#### 【翻訳】

同じように再臨時代にも再臨主を中心として、人類の墮落歴史が完全に整理され、新しい御言とともに新しい歴史が始まります。神様の摂理の時代性で見ても、必ず新しい御言が出て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新しい時代に与えられた新しい御言に隠された歴史の秘密が明らかになることでしょう。

その次に、聖書の預言で見ても新しい御言が出て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ヨハネによる福音書 16 章 25 節を見れば、"わたしはこれらのことを比喻で話したが、もはや比喻では話さないで、あからさまに、父のことをあなたがたに話してきかせる時が来るであろう。"とあるし、ヨハネの福音 16 章 12 節には"わたしには、あなたがたに言うべきことがまだ多くあるが、あなたがたは今にそれに堪えられない。"と言いました。神様が人間に授けたい御言は多いのですが人間が耐え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まだ授けられなかったのです。

또 요한복음 16 장 13 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성령이 오시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림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 유대교인들이 불신해서 뜻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 장 11 절에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오면 땅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주권자에게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 【翻訳】

また、ヨハネによる福音書 16 章 13 節を見れば、"真理の御霊が来る時には、あなたがたをあらゆる真理に導いてくれるであろう。それは自分から語るのではなく、その聞くとこを語り、きたるべき事をあなたがたに知らせるであろう。"とありました。イエス様が十字架に亡くなった後、聖霊が来られれば、将来なされる事を見せられるという御言です。

再臨主も同じことです。イエス様の時にユダヤ教の人々が不信に思ってみ旨をみな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ために、そのみ旨がそのまま残っています。それで再臨主は神様の秘密を持ってきて、神様が教えて下さった通り語られて、未来になされることを預言したりもします。ヨハネ黙示録

10章 11節を見れば、"あなたは、もう一度、多くの民族、国民、国語、王たちについて、預言せねばならない。"とする内容があります。それは時が来れば地上にあるすべての国の民とその国の主権者に教えるという意味です。

그 새로운 말씀이 바로 "통일원리"입니다. 통일원리를 더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원리본체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맛이 변하거나 부대가 찢어져 다 쏟아지게 됩니다.

더러운 타락의 옷을 벗고 깨끗한 본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타락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면 그 말씀은 자기 것이 못 됩니다.

#### 【翻訳】

その新しい御言がまさに"統一原理"です。統一原理をさらに新しく教えるのがこの"原理本体論"です。ルカ福音5章38節に"新しいぶどう酒は新しい皮袋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なのだ。"としています。万が一古い皮袋に新しいぶどう酒を入れれば、その味が変わったり、皮袋が裂けてあふれることになります。

汚い墮落の服を脱いで、きれいな本性で御言を受けてこそ神様が下さる御言を正しく聞くことができます。墮落性をそのまま持っていれば、神様の新しい御言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下さる御言をおいて自分の考えのままにああだこうだ批判すれば、その御言は自分のものにはなりません。

### 3. 통일원리의 구조와 중심내용 (統一原理の構造と中心内容)

'통일원리'는 참부모님이 밝히신 '원리원본'에서 출발합니다. '원리원본'을 해설하고 강의하도록 체계화한 것이 '원리해설'과 '원리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원리본체론'입니다.

'원리해설'과 '원리강론'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을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원리본체론'입니다. '원리본체론'이라 하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든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원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통일원리'는 때가 되어야 밝힐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단계적으로 밝혀왔는데, '원리본체론'은 참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밝힌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 【翻訳】

"統一原理"は真の御父母様が明らかにされた"原理原本"から出発します。"原理原本"を解説して講義するように体系化したのが"原理解説"と"原理講論"です。その次に出てきたのが"原理本体論"です。

"原理解説"と"原理講論"で明らかに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内容を新しく教えるのが"原理本体論"です。"原理本体論"というと新しい理論を作ったと理解する人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原理は一つしかないのです。

"統一原理"は時になってこそ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内容なので、御言を通じて段階的に明らかにした"原理本体論"は真の御父母様が最後に明らかにした原理に対する御言です。

'원리해설'과 '원리강론', 그리고 '원리본체론'은 모두가 '원리원본'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을 통틀어 '통일원리'라고 합니다. '통일원리'는 모두 같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원리'의 구조와 중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원리'는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편의 중심 내용은 창조원리입니다. 창조원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세계를 창조하신 설계도입니다. 창조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전개한 정밀한 설계도에 의해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게 됩니다.

#### 【翻訳】

“原理解説”と原理講論”,そして“原理本体論”はすべてが“原理原本”を土台に成り立っています。これらをあわせて“統一原理”といいます。“統一原理”は全く同じ体制で構成されています。

“統一原理”の構造と中心内容を調べてみます。

“統一原理”は前編と後編で構成されています。前編の中心内容は創造原理です。創造原理は神様がこのすべての存在世界を創造された設計図です。創造原理では何よりも神様に対する問題を集中的に扱います。神様が創造理想を成し遂げられるために、自分を展開した精密な設計図によってこの世を造ったので、神様に対する問題から扱う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인류의 죄의 뿌리가 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꾀었던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바로 타락론입니다. 잘못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는 이론이 타락론입니다. 그러나 타락론은 원리가 아닙니다. 타락의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 분이 세우신 원리도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해서 원리의 실체가 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중심으로 인간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섭리입니다.

#### 【翻訳】

ところで、人間は墮落によって神様の創造理想を失いました。聖書には人間が善惡の実を取って食べて墮落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今日、キリスト教は人類の罪の根元になる善惡の実が何なのか、その善惡の実を取って食べるように誘った蛇の正体が何なのかを明らかにできずにいます。墮落に対する内容を明らかにするのが、まさに墮落論です。誤ったまま生きているので、正しく教えるべき理論が墮落論です。しかし、墮落論は原理ではありません。墮落の原因と結果を具体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創造本然の人間に戻れるようにする道案内なのです。

神様が墮落した人間を捨て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があります。神様は絶対であり、立てられた原理も絶対、唯一、永遠、不変であるためです。たとえ人間が墮落して原理の実体になれ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原理の主人であられる神様が立てられた原理は、なくしたり変更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ような原理を中心として、人間を本来の位置に戻れるようにするのが救援摂理です。

타락론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말론, 구주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도 구원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끝날가 온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타락세계는 불로 다 심판해버리고, 땅을 다 깨버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주를 만난다고 합니다. 또 주가 땅에 재림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을 깨버리고 불로 심판하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등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말론에서는 말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翻訳】

墮落論の次にくる終末論、救主論、復活論、予定論、キリスト論も救援の道案内です。

聖書ではこの世の終わりがくるといいます。末世になればこの墮落世界は火でみな審判してしまい、土地をみな滅ぼしてしまい、天にある太陽と月が光を失い、星が落ちるといいます。その次によく信じる聖徒は空中に引き上げられて主に会うといっています。また、地に再臨すれば新しい天と新しい地が開かれるといっています。

しかし地を滅ぼしてしまい火で審判して人々が空中に引き上げられ、太陽と月が光を失って、星が落ちるといふなどの御言は比喩と象徴なのです。今日のキリスト教がそれをまともに解釈できなくなっていますが、終末論では末世の真の意味が何なのか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ています。

구원섭리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복귀섭리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병이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말하며,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없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똑같이 타락인간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통일원리'에서는 구원섭리는 곧 복귀섭리라고 합니다.

타락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준비된 메시아가 와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翻訳】

救援摂理は本然の世界へ戻れるようにするもので復帰摂理といっています。水に落ちた人が救援されたというのは水に落ちる前の状態になることをいいます。病気にかかった者が救援されたというのは病気がきれいに良くなり、元気な状態で回復したことをいい、罪人が救援されたというのは罪ない本来の人間に戻ったことをいいます。それで救援を復帰というのです。二つの単語は同じように墮落人間が本来の位置に戻ることを意味します。それで'統一原理'では救援摂理はすなわち復帰摂理といっています。

墮落したこの世界の全てのものは整理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悪かった歴史なので終末が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です。誤った歴史は準備されたメシアがきてこそ整理できます。

구주론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지,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재림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가는 부활섭리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고 마지막 재림주가 오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줄 압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 접붙여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밝힌 것이 부활론입니다.

#### 【翻訳】

救主論ではメシア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がなぜ亡くなったのか、なぜまた来られる他はないのか、再臨の目的が何なのかを詳しく説明します。

メシアが再臨すれば、死んだ者達が再び生き返る復活摂理があることになります。キリスト教徒は聖書の内容を文字どおり信じており、最後の再臨主が来られる時には死んだ者達が墓から起きて偉大な手によって出てく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万一そうなるならばどうなりますか? 復活は死者が墓から起きあ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墮落した人間は全部死んでいるので、メシアを通じて接ぎ木をして再び生き返るという意味です。このような問題を明らかにしたのが復活論です。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설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혼돈을 줍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으로 갈 사람, 이렇게 다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에게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혼돈을 주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 예정론입니다.

### 【翻訳】

死んで生きる問題、救援を受けたり受けられない問題は神様がみな予定したと信じる人がいます。このような予定説を信仰する人々によって多くの混沌が生まれます。いくら熱心に信じてても生まれる時から、この人は地獄に行く人、あの人は天国に行く人、このようにみな予定されているならば人間に何の努力が必要でしょうか？ 混沌を生じさせるこのような問題を全部整理したのが予定論です。

전편의 마지막 결론은 기독교론입니다. 기독교론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중생이 무엇이며,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강령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강령이 가장 중요한데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론을 잘모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이 왜 있으며, 삼위일체의 근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통일원리'를 알고 있는 식구들도 잘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강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리강론'에서 해석해 놓았습니다. 기독교론이 전편의 결론입니다.

### 【翻訳】

前編の最後の結論はキリスト論です。キリスト論はイエス様が誰であり、イエス様の使命は何であり、重生が何であり、三位一体が何なのかを扱っています。それがキリスト教の綱領です。キリスト教では綱領が最も重要ですが、キリスト教徒もキリスト論をよく分からないのです。重生は新たに生まれることを言いますが、どのように新たに生まれるのかを知らずにいます。三位一体は聖父、聖子、聖霊の三つの格位が一つの実体である神様の中に存在するという教義をいいます。しかし聖父、聖子、聖霊がなぜ存在し、三位一体の根本が何なのかは分からないのです。"統一原理"を知っている食口たちも、よく分からないのです。指導者が講義は必要ないと考えているのか、よく教えていません。しかし必要な内容なので"原理講論"で解釈しておきました。キリスト論が前編の結論です。

그리고 후편에서는 먼저 복귀원리를 통해 복귀를 하기 위한 공식 노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면서 인간이 원리에 따라 복귀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복귀섭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재림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재강림준비기 400년 보내고 재림주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400년 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복귀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귀원리는 재림주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그저 막연하게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언제 올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만 쳐다보다가 결국에 다 지쳐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 【翻訳】

そして、後編ではまず復帰原理を通じて、復帰をするための公式路程を知らせます。神様は摂理をされながら、人間が原理により復帰するようにします。それが復帰摂理を通じて最後に再臨主が来ることになるのです。メシア再降臨準備時代 400年を経て再臨主が来られます。神様が再臨主を送られるために 400年間どんな準備をしたかを教えるのが復帰原理の核心内容です。

復帰原理は再臨主がいつ、どのように、どこに来られるのかをはっきりと教えます。今まで、キリスト教は神様の摂理という話をただ漠然としてきました。それで救援が何であり、神様が雲に乗って来られるのに、いつ来ることなのかをよく知らずにいます。どこに来られるのかもよく分からないのです。なので空を見つめて、雲だけを見つめて、結局みな疲れて、もう神様を待つつもりもなくなっています。



주님은 도적같이 오는데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복귀원리의 결론은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원리'에 대해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교의 '불경'처럼 일종의 교리로 여겨왔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교인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통일원리'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통일교인조차도 '통일원리'는 통일교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교리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일원리'에는 온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翻訳】

神様は盜賊のように来ると言いますが、まさにその時が今だと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日、私たちは、神様が、いつ、どこに、どのように来られるつもりなのかと考えることをはっきりと教えているので、希望があります。

復帰原理の結論は、実体として来られるメシア、救世主、再臨主、真の父母がいつ、どのように、どこに来られるのかを教えるのです。

今まで多くの人々は'統一原理'に対してキリスト教の'聖書'や仏教の'経典'のように、一種の教理として考えてきました。そのために家庭連合の信者を除いた一般の人々は'統一原理'は自分とは全く関係がないと考えます。さらに家庭連合の信者でさえも、'統一原理'は家庭連合の信者になるために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教理である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これは誤った考えです。'統一原理'には全人類が悩んでいる現実世界の問題を解決でき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 4. 통일원리 출현의 배경 (統一原理出現の背景)

'통일원리'는 참부모님(이하 단수인 참아버님, 또는 아버님으로 지칭함)이 밝히셨습니다. 참아버님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참아버님은 16세인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창조이상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지 못한 뜻을 완수할 사명자로 참아버님을 세우셨습니다.

#### 【翻訳】

'統一原理'は真の御父母様(以下単数である真のお父様、または、お父様と指し示します)が明らかにしました。真のお父様は1920年1月6日平安北道定住郡トゴン面サンサリ2221番地で誕生しました。真のお父様は16才である1935年4月17日、復活節の夜明けに祈られる中で神様の天命を受けます。

神様はアダム・エバの墮落で果たせなかった創造理想を成し遂げられようと、2000年前、この地にイエス様を送られましたが、イエス様が十字架に亡くなることによってその御旨が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のです。神様は再びイエス様を通じて果たせなかった御旨を成し遂げる使命者として真のお父様を立てました。

참아버님은 그 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만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뜻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1935년 4월 17일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만 9년, 햇수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원리를 구명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1945년 전까지는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원리를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발표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었

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10년 안에 이 말씀을 찾아서 완전히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원리를 다 찾아놓고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우연히 찾은 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문헌이나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 【翻訳】

真のお父様は、その時から全てのものを捨てて、神様の解放のために、人類を罪惡の中から解放させるために、主人を失い、嘆く万物を解放させるために、御旨の道を行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1935年4月17日から1945年8月15日、解放になる時まで満9年、年数で10年の間、神様の原理を究明することに没頭しました。

1945年前までは日帝治下だったために原理を発表できませんでした。この御言を発表すれば、サタンがそのままにしておきません。当時には信仰の自由もなかったのです。思いのままに祈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のような状況から解放される前までの10年以内に、この御言を探して完全に整理しておかなければ、解放と一緒に新しい時代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で真のお父様は原理をみな見い出して解放の日を待ちました。それが人間の責任分担です。なので原理は偶然に探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絶対的な啓示によって出てきた御言です。どのような文献や人間の頭脳からも出てきた御言ではありません。

원리를 찾는 일은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을 주워 껴어 맞추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바다 깊은 곳은 수심 10,000미터가 넘습니다. 그 깊은 곳에 모래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흩어져 있는 모래알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껴어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통일원리'를 찾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억만 사탄과 혈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아버님은 1952년 5월 10일, 부산에서 '원리원본'의 정리를 마치고, 부산에서 원리를 전파하기 시작하여 대구를 거쳐 서울에 이른 다음 1954년 5월 1일, 서울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습니다. 협회를 창립한 지 40년이 지난 후 통일교회 간판을 떼어내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세웠습니다. 참아버님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면서 "40년이 되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간판을 떼어야 한다, 지금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선교하지만 그때에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 【翻訳】

原理を探すことは、太平洋で砂粒を拾って通して合わせることで骨を折ったといいます。太平洋の深いところは水深10,000メートルを越えます。その深いところに砂粒が散らばっています。そこで散らばっている砂粒を一つ一つ訪ねて行かれ、通し合わせることで、より難しいのが'統一原理'を探すこと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この御言を探すために億万のサタンと血みどろの戦いを行ったりもしました。

真のお父様は1952年5月10日、釜山で'原理原本'の整理を終えて、釜山で原理を伝播することを始められ、大邱を経てソウルに達した後、1954年5月1日、ソウルで'世界基督教統一神霊協会'を創立しました。協会を創立して40年が過ぎた後、家庭連合の看板を引きおろして'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をたてました。真のお父様は世界基督教統一神霊協会を創立しながら、"40年経てば世界基督教統一神霊協会の看板をおろさなければならない、今、教会は個人の救援のために布教しているが、その時には家庭を通じて神様の御旨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話をされました。神様の理想は教会にあるのではなく家庭にあるという意味です。

그래서 1957년 8월 15일, '원리해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원리원본'을 해설하는 데 5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1일, 만 9년 만에 '원리강론'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1966년 '원리강론'을 쓴 후 42년이 걸려서 '원리본체론'을 세웠습니다. 2008년 9월 1일 참

아버님께서 “원리본체론 교육을 말씀하시고 10월 10일, 하와이 킹 가든(KING GARDEN)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원리본체론’은 ‘통일원리’를 근본으로 세워졌습니다. ‘통일사상’과 ‘승공이론’도 ‘통일원리’를 근본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발표 연도나 내용의 구체적인 면에서 볼 때, ‘원리해설’은 상징원리라 할 수 있고, ‘원리강론’은 형상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본체론’은 실체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 【翻訳】

それで1957年8月15日、‘原理解説’を發表したのです。‘原理原本’を解説するのに5年かかったのです。そして1966年5月1日、満9年ぶりに‘原理講論’を世の中に出しました。

1966年‘原理講論’を書いた後、42年かかって‘原理本体論’を立てました。2008年9月1日、真のお父様が“原理本体論教育を語られ10月10日、ハワイ キング ガーデン(KING GARDEN)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日と場所まで指定して下さいました。

‘原理本体論’とは‘統一原理’を根本として立てられたものです。‘統一思想’と‘勝共理論’も‘統一原理’を根本として書かれたのです。発表経路や内容の具体的な面で見ると、‘原理解説’は象徴原理ということができ、‘原理講論’は形象原理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原理本体論’は実体原理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